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일반언론OK, 교계언론NO?

미디어법 통과를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진보 진영을 비롯한 다수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의 본질이 언론 장악에 있다고 말한다.

정권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 1980년 전두환 사령관 등 신군부는 '언론통제법'을 제정했다. 2007년 5월 22일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도 있었다.

'언론통제법'은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된 결의문과 함께 언론계의 자율적 정화의 형식을 갖추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출입기자단'을 표적으로 삼았다. 양비론을 들어 피해자(?)측의 책임을 묻자면, 어떤 형태로든 언론이 비밀을 공개해 자초한 화였을 것이라는 유추도 가능하다.

문제는 '출입기자단'의 황포가 2009년 불교 1번지 조계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서 발송된 이메일에는 "하안거 해제 취재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계종을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단에서 '불교계 기자들과는 간담회 등 일체의 취재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몇몇 교계 기자들이 반발하자 총무원 측은 "하안거 결제는 교계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해제는 일간지에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고, 결국 교계 언론사들은 하안거 해제 취재지원을 받지 못했다. 취재지원을 하고 싶지는 취재원의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가 외압(?)에 의해서, 그것도 다른 일반 언론사들에 의한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교계 각 언론사들은 안거마다 선지식의 법어와 입제, 해제 등을 불자들에게 알리었다. 안거가 선방에서만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방부들인 스님들만 안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갖고 '죽비와 목탁'이 되어 세상에 알리는 교계 언론사들이 아니었던가?

양측 기자단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자 고민했을 총무원 측은 고충은 심분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취재원(양측)에 교차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같은 절집안 대중을 소홀히 대하는 역차별에 가깝다.

덧붙여, 일간지 기자단은 독단의 원칙을 허물고 상생으로 회심(回心)해 불교언론에 예의를 다하기 바란다.

## “대천세계 다니며 참구하라”

### 8월 5일 하안거 해제... 2237명 용맹정진

8월 5일은 한여름 더위보다 뜨겁게 전국 도량을 달군 용맹정진의 정력(定力)이 대중에 회향되는 하안거 해제일이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기축년 하안거 선방합람>에 의하면, 이번 하안거 동안 조계종에서만 95개 선원(총림 4곳, 비구선원 55곳, 비구니선원 36곳)에서 2237명(비구 1127명, 비구니 933명, 총림 177명)의 대중이 용맹정진을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정경 법전 스님은 8월 5일 불기 2553년 하안거 해제일을 맞아 법어를 내리고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한 남자(衲子)가 대수 선사와 용제 선사를 찾아 다니며 나는 선담(禪答)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물고기(魚)가 헤엄치면 흠뻑 물이 일어나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너진다고 해도 장애가 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전 스님은 "남자(衲子)와 대수, 용제 선사가 나는 '검화(劒火)' 공안에 대해 무감각해서도 안 되고 정식(情識)으로 알리고 해서도 안 된다"며 "무너졌다고 해도 틀렸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이 공안에 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해제 만행기에 대천세계를 다니며 항상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도 기축년 하안거 해제법어를 발표했다.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은 제대로 해야 하면서 하루가 다하고 나면 후회하면서, 내일은 반드시 오를 것들을 성취하리라고 기억하다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스스로 위안하기를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나 두 무릎을 치면서 왜 이렇게 늦었는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그 근본을 찾아 깨닫는데 주력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라며 "모두들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진하고 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어 전문은 **붓다뉴스**에 조동섭 기자

### ‘우란분재’가 궁금하다면?

#### 조계종 포교원 ‘우란분재’ 출간

음력 7월 15일(백중)이면 하안거 해제와 동시에 전국의 사찰에서는 우란분재를 봉행한다. 우란분재는 어디서 유래했고 어떤 공덕이 있을까? 백중의 유래는 무엇일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은 최근 <우란분재>(조계종출

판사)를 출간해, 이런 의문들에 해답을 제시했다. <목련경> 등에 따르면, 우란분재는 부처님 재세 시 목련존자에 의해서 시작됐다. 백중은 하안거를 마치고,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고백하는 날이라고 해 백중(白衆)이라 불린 것

을 비롯해, 백중(白鍾) 백중(百種) 중원(中元) 망혼일(亡魂日) 등으로 알려져 왔다.

이 외에도 포교연구실은 <선경경> <범망경> <심밀해탈경> 등 전거를 들어 불교의 효사상을 설명했다.

포교연구실장 동성 스님은 "전래의 세시풍속과 불교적 풍속이 결합된 백중의 의미와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모습으로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02)720-0677 조동섭 기자

### 전통사찰 규제 큰 폭 완화

#### 국무회의서 '개발제한구역...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돼 증축과 진입로, 수목장 등 설치가 수월해졌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화계사, 진관사 등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증축이 문광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의 협의규모까지 가능해졌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 설치도 용이해졌고, 전통사찰 95개 중진

입도자가 미비해 화재나 재난방지에 어려움을 겪던 46개소(약 50%)에 도로가 신설될 수 있게 됐고, 전 통사찰의 증개축시 부과되던 개발훼손부담금도 면제됐다.

같은 날,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은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중단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 선봉사 삼천만원 전달

####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에



지관 스님에게 자비나눔 성금을 전달하는 향적 스님(오른쪽).

선봉사 주지 향적 스님은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에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7월 27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총 7억4341만원(약정액 포함)으로 집계됐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유지재단 수익사업 '가능'

#### 정관 문광부 승인... 불교사업 기반 갖춰

조계종 중앙총무원의 재산을 관리하는 조계종 유지재단(이사장 지관)이 최근 정관 변경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불교 문화 홍보 등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자 변경된 정관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에 따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등에서 불교용품 및 템플스테이 테마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음식점 운영 등을 통해 불교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익사업을 통해 모아진 수익으로 향후 종단 재정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관은 제4조 2항에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

목을 새로 넣었다. 또 수익사업의 종류로 국제포교활동과 포교·교육 사업을 추가했고(제4조 1항), 제18조에도 사업수입을 명시했다.

총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으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등에서 불교용품 및 템플스테이 테마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음식점 운영 등을 통해 불교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익사업을 통해 모아진 수익으로 향후 종단 재정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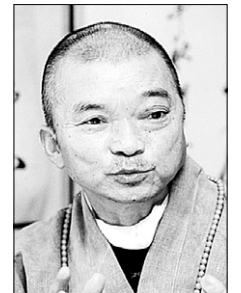
한편, 유지재단은 정관 변경에 이어 운영규정 제정, 사업등록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 “교육 수행 통해 종지종풍 복원해야”

#### 지허 스님 태고종 종책토론회서 주장



7월 24일 열린 태고종 제2차 종책토론회.



태고종 원로의원 지허 스님.

“교육과 수행을 통해 종지종풍을 복원하는 것만이 본규의 상치를 벗고 교세를 만방에 떨치는 길이다.” 태고종 원로의원 지허 스님(순천 금둔사 주지)은 7월 24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의 두 번째 종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허 스님은 종단 교육 현실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선조사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을 오늘날에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허 스님은 “소수의 승려가 계율 중시의 수행불교를 주장하며 대본산 사찰과 전국 주요사찰을 점거한 것이 조·태 분규”라면서 “불교계 산은 선조사 스님들의 수행의 공덕

으로 이런 부처적인 산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역대 조사의 교육과 수행을 더 충실히 따르고 보존해 그 결실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것이 태고종풍을 선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구 총무원장이 추천한 종책기획위원 51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종책토론회에선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장 우성기 교수가 ‘태고종 종헌, 종법체제 및 선거법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태고종 종헌종법을 근간으로’를 소주제로 총무원 교무부장 북혜 스님과 문화부장 상진 스님, 연세대 신규택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김성우 기자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의 '현대불교'를 이룩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좌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불교노인요양원 삼천사·인덕원이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불교전문노인요양원 인덕원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해동의 영산으로 불리는 북한산 자락에 기존 건물을 신개축하여 국내 최대의 300병상 규모와 최첨단 시설, one-stop 토탈케어서비스를 갖춘 노인요양종합복지타운을 세워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인덕원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불심을 두루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케어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입소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내 부모님처럼 섬깁니다.

인덕원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살행으로 실천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아픔은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불교전문노인요양원입니다.

■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

■ **입소문의** : 02)385-8205, 02)3156-7500

삼천사·사회복지법인인덕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은평뉴타운지역 내)  
www.idw.or.kr